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64

2016. 5.22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
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오늘의 주요기사

- 2 청소년 기도회
- 3 담임교역자 청빙위원회 구성
- 4 사역팀 소식
- 5 사역팀 소식
- 6 아들이 보이라
- 7 목회칼럼
- 8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5/22(주일)	청년주일
6/5(주일)	성찬주일
6/12(주일)	통일선교주일
6/13(월)	정기당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5월 5일 어린이날 열린 무지개잔치

교회학교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고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과 부합하여 청소년 사역을 비롯한 교회 내, 외적인 교육 사역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소문을 듣고 등록하거나, 부모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8%이고, 영아부가 없는 곳은 10개 교회 중 8개 교회라고 한다. 주님의교회는 매주 아기나들이가 있고, 주일이면 교회 곳곳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 그런 통계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교육부서(유년1-2부, 초등1-2부, 소년1-2부)는 총 6개가 있고, 현재 등록된 어린이 수는 437명, 교사 수는 115명이다. 규모가 크고 표면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 교육부서 중에서 특별히 어린이부서에서 오랜 기간 헌신한 몇 명의 교사들을 통

해 현장에서 부대끼며 느끼는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교사,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

교회 내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그 사역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마치면 돌아오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주일의 분주함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 하고, 예배와 공과모임을 위한 준비, 절기 행사나 수련회를 위해 따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교회 안의 그 어떤 헌신보다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그래서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 교회학교의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영적 성장을 해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인의 영성과 신앙적 성숙이 우선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교사대학을 통해 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섬 없는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교사들은 재충전을 위한 방학이 있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1년 내내 섬 없이 달리고 방학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쏙아야 한다. 그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교사와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격려하고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예산, 공간, 시간, 무엇보다 관심

늘 부족하다. 어느 것 하나 여유가 없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른보다 적고 체격이 작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어른들보다 그만큼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적으로 건축재정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교육부서의 예산만큼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를 공급하더라도 양질의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예배 공간은 있지만 그날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 내외라서 교사가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그날의 말씀 주제를 소화하는 것도 벅하다. 멀리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늦게 마치면 아이를 데려가려는 부모들이 성화이다. 많은 아이들은 주중에 학교와 학원 등을 통해 학업에 몰두하고, 말씀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예배와 공과모임을 하는 시간이 전부일 것이다. 장년들은 주일예배뿐 아니라 수요일예배와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헌신과 교제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 한다. 아이들이라고 영적으로 어른과 다를 것인가.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찬양과 말씀 속에 꼭 빠질 수 있고 교사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련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더 바쁘다는 이야길 종종 한다. 수련회 참석인원이 점차로 줄고 있고 사회생활에 고된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참여방법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때만큼은 아이들의 신앙이 여물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통한 교회의 미래

가정에서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 교회학교에 아이를 맡겨놓고 신앙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 안일한 생각

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전적으로 가정이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 담임교사와 소통하길 원하는 만큼, 아이의 영적 성장과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고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성공을 지향하고 일찍부터 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대는 우리 사회의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한다. 동시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우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 어른들의 세속화된 경쟁 기반의 사고가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모습이 보인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 도움을 주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치며

이번 주일도 어김없이 교회학교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사들이 있다.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이 정말 이뻐요.'라고 고백한다. 어느 초등학생에게 장래희망을 물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그 답변 속에 교회학교 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묻어나온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가 더욱 값진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모두의 구체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함줄함울**

청소년 기도회

희망을 기도하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인의 삶이며 가장 평범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필수요소이면서도 잠시 쉬어도, 좀 덜 해도 되는 자기 성찰의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의 통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10:00-12:00 소예배실) 청소년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또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사회와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고,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 그 약속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위해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희망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청소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중등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8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灌油(관유, anointing oil)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출애굽기 25장 6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출애굽기 29장 7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8장 10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감람유에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몰약 등을 섞어 만든 거룩한 기름이다. 성별의식에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위 위임 할 때나 성소의 기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고 발랐다. 이 기름은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다른 것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하였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향기를 내므로 관유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를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灌(씻을 관, 물덜 관): 액체의 총칭인 水(물 수)의 변형체 澆(삼수 변)에 깨끗한 새를 상징하는 灌(황새 관)을 합쳐【물에서 황새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油(기름 유): 액체의 총칭인 水(물 수)의 변형체 澆(삼수 변)에 까닭의 뜻을 지닌 由(말미암을 유)를 합쳐【액체로 말미암아 불을 붙일 수 있는 종류가 기름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2



아름다운 길, 함께 그 곳에 머무는 것 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감. 환우께 마지막일지도 모를 책임자죽을 한 수저라도 더 드리려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입니다. (춘천호스피스에서)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인터뷰

제5대 담임교역자 청빙위원회 구성



주님의교회는 창립 이래 ‘무기명 헌금’, ‘예산의 50% 이상 대외 지원’ 과 함께 ‘교역자와 장로의 임기제’ 를 전통적인 실천이념으로 지켜오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교회 정관 제3조에도 밝혀서, 창립 정신을 명문화한 바 있다. 정관 제18조에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부임 후 첫 설교를 한 날부터 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6월 17일 부임한 현 박원호 담임목사의 임기는 2017년 6월에 종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정기 당회에서는 김창안 서기장로를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구성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임기 만료 만 1년이 남은 지금, 제5대 담임교역자의 청빙에 대한 진행 상황이 궁금한 교회 구성원을 대신하여,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 함글함글이 청빙위원장을 맡은 김창안 장로를 만나 물어보았다.



지난 3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시무장로 회의에서 청빙과 관련한 의견을 두루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당회에서 청빙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되었고, 4월 당회에서 위원으로 시무장로 중 장일형, 박중규, 박대길, 김성구 장로가 임명되어 총 5명으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일정, 여론 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책을 맡게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합니다.

담임 교역자 임기제에 따라, 청빙의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청빙절차와 관련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요.

주님의교회 전통에 따라 청빙이 여러 번 진행되었지만 이번에 살펴보니 그 동안의 청빙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절차와 규정 등을 잘 만들어서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교회 데이터시스템에 유지할 예정입니다.

청빙위원회의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미션 스터디(mission study)

를 통해 주님의교회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에 맞는 담임목사의 역할과 적합한 목회자상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청빙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직분자들도 기도로 무장하고, 릴레이 기도 같은 형식으로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절차와 과정 중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여론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넣으려 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현재 청빙위원회는 5명의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위원회 내에도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두어 명을 더 선정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은퇴장로 중 한 분도 고문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공감감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에 기초한 목회자상은 어느 교회와는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립이념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규정에 나와 있지요. 주님의교회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려놓음’, 또는 ‘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10년, 더 나아가 20~30년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보고, 정관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목회자를 모시려 합니다.

청빙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시는지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일은 교회적으로 매우 큰 변화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지요. 이런 잡음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현 박원호 담임목사님도 청빙 과정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3월의 당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청빙위원들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후보추천 권한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청빙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당회에 보고하고 성도들에게도 알려서, 투명한 절차로 공감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5월에는 은퇴장로와 간담회를 갖고 고견을 들으려 합니다. 또한 교회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 내 여론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본 절차에 해당하는 청빙공고는 하반기에 낼 예정입니다. 공고 매체나 형식, 내용 등은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 교회적인 기도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청빙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빙이란 어떤 자리에 적합한 분을 직접 찾아가서 모셔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모셔오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적합한 분을 찾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에서는 제5대 담임교역자 청빙에 대하여, 주님의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귀한 의견 주시면 함글함글에서 모아 청빙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팀 소식

영어예배팀 수련회



4월 29일(금)~30일(토) 가평소재 팬션에서 영어예배팀 수련회(Retreat)를 가졌다. 밤늦게 도착해서 본 청평 호수는 주변 봄꽃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수련회 주제인 healing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팀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Keep the Queen Pig'(우리팀 돼지여왕 지키기) 게임을 했다. 나는 다른 팀의 돼지여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 팀 방어자의 발 공격에 2번이나 발라당 넘어져 점수를 잃었다. 다음날 주제 강연에 앞서 John Schneider 목사님이 준비한 질문지로 토론시간을 가졌다. 치유의 기도 능력에 대해 믿는가? 치유기도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가?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질문마다 자신에게 와 닿는 예시를 들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육신의 치유, 감정치유, 영적치유와 얽려,

죄의식, 분노로부터 두려움과 의심에서 치유를 위한 각자의 의견도 나누고 기도하였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나 절실함, 믿음, 소망의 부족함으로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누었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났지만 상쾌했다. 마주보며 담소하는 시간, 아침 햇살과 꽃과 푸른 숲의 어우러짐, 새들의 노래 소리, 강변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하나 되는 온전함을 느껴보았다. 아침 8시에 목사님의 주제 강연이 시작되었다. 원래의 온전함이 깨어진 불안함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체험과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곳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고 healing이 되는 삶이기를 기도하였다.

이재덕 영어예배 팀장

사역팀 소식

군선교팀 신병 진중세례식



4월 30일(토)에 주님의교회 군선교팀은 올해 두 번째 신병 진중세례식을 12사단(강원, 인제, 원통) 신병교육대로 다녀왔다. 버스로 3시간 만에 도착하여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DMZ 안에 있는 을지전망대로 방문했다. 날씨가 흐려서 북쪽 산하를 선명히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생생한 영상과 안내 장교의 지형설명, 북한의 어려운 실정과 우리의 든든한 경계 대비태세에 대해 들었다. 을지전망대에서 내려와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당일 사병들이 먹는 메뉴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였다. 예배 시작 전에는 주님의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과 훈련병들과 함께한 율동으로 교회 안에 모인 350여명의 훈련병과 주님의교회 진중세례팀 40여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성과 열기가 가득

한 시간을 가졌다. 예배 시간이 되어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 하는 훈련병들에게 은혜로운 권면의 기도와 말씀 봉독, 김용웅 목사의 설교로 예배가 끝나고 20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인원에게 성경을 선물했고, 참석한 350명의 훈련병들에게 간식을 전달했다. 이 부대는 사단장의 관심으로 전 부대 신자화를 위해 예배 참석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빠지지 않고 12회의 예배에 참석하면 1박의 휴가를 제공하므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의 큰 관심과 우리 주님의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 군선교를 확대함은 젊은 군인의 정신 건강과 군 전투력에도 크게 기여 하리라 믿는다.

이성훈 안수집사

사역팀 소식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다

5월2일(월) 새벽 주님의교회 환경사역부가 주관한 울진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교우 42명과 함께 다녀왔다. 참가자 신청을 받을 때부터 교우들의 뜨거운 관심이 나타났다. 공고 다음 날 신청했는데 제한 인원이 초과되어 대기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취소하시는 분 덕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가 목적은 첫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알고 싶었다. 둘째로는 원전은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임으로 그를 안전하게 운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번 견학으로 알게 된 것은 마스크를 통해서 목격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은 우리 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원자로는 구조적으로 노출형이고 우리는 원자로를 튼튼한 방호 캡슐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같은 폭발이 설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호 캡슐 안에서 보호되는 상황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안전 의식이 향상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국

가 보안 1등급 시설로 청와대와 동급이고 그 수준에 적합하게 출입자를 관리하였다. 현장 견학 코스는 원자로를 제외하고 유리창으로 격리된 상태이지만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안내하여 주었다. 따라서 운전제어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터빈 발전기실 등의 현장을 둘러 볼 수 있었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운영에 필요한 현장 점검조만이 완전 방호한 상태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 외는 무인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의 원전은 미국과 국제안전규정에 만족하도록 설계되

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최우선으로 수습되는 방식을 기본 개념으로 시설한 줄 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정성이 모아져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주된 전력 공급원으로 계속 발전하고 핵연료 재처리의 길도 열려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제원 안수집사

사역팀 소식

늘푸른대학 봄나들이



푸른 싱그러움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뜨거운 태양도 자신을 숨기며 신록의 푸름에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비단길로 살방살방 리듬을 타며 오름과 내림 속에, 2016년 늘푸른대학 봄나들이가 5월 17일 (화) 인천대공원에 220여명이 다녀왔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더욱 돈독해지며 서로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은 무언으로 흐른다. 아름다운 마음이 축축이 적

서주며 희망의 향기가 피어나는 봄나들이, 화창하고 눈부신 오늘 뿌듯함으로 행복해지는 하루 또 다른 선물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나이드심도 우리들이 느끼는 청춘이라는 것을 아는 푸르름과 함께한 나들이였다. 늘푸른대학에서는 봄과 가을에 각 한차례씩 나들이를 진행한다.

함글함글

사역팀 소식

남선교회 연합모임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교회 식당에서는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선교회 재창립 연합모임이 열렸다.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는 연령별로 여섯 개의 선교회로 나뉘어 잘 활동하고 있으나, 남선교회는 한때 활동을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35세 이상 남성도 약 25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65세와 55세를 기준으로 하여 3개의 남선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연합총회에서는 그간의 배경을 설명하고 회칙을 통과시켰으며 임원을 선출하였다. 선교회별 사업협의를 통해 활발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한 남선교회의 재창립을 축하하며, 남선교회가 교회의 일꾼이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함글함글

무지개잔치 기념

초등부 독서 일기쓰기대회 시상식



제3회 도서사역팀 주최 무지개잔치 기념 초등부 독서일기쓰기대회 시상식이 5월 5일 무지개잔치 개막식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으로 제 3 회째를 맞이하는 초등부 독서일기쓰기대회 결과 은상에는 아주초등학교 김윤희 어린이가 동상에는 강일초등학교 이재영 어린이가 수상하여박원호 담임목사가 수여하는 상장과 상품(문화상품권)을 받고 기뻐하였다. 무지개잔치에 어린이날의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지난 3월과 4월에 독서일기쓰기를 실시해 심사결과 발표된 결과였다. 최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에 몰두한 나머지 독서를 멀리하고 게임중독에 빠지는 등 그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교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고 도서사역팀장은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함글함글

섬김과 나눔

송파교육복지센터 개소식



5월 3일(화) 오후 2시에 개소식을 하였다. 송파교육복지센터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사)섬김과 나눔에서 위탁받아 송파구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교육소외 학생 및 집중지원학생이 참여한 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보호 가족대상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 장애, 조부모 가정 학생,
- 학교장,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다.

함글함글

어버이날에

아들아 보아라

연년생으로 4남매를 낳아
막내인 너를 낳을 때 수월할 줄 알았는데
머리가 커서 난산으로
엄마 목숨 잃을 뻔 했다는 건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지?
너는 엄마의 목숨과 맞바꿀 뻔한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말거라.

엄마가 살았던 시절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국민학교 졸업으로 가방끈은 끝이었단다.
가정환경조사서에 엄마 학력을
고졸로 적어낼 때 마다
너희들에게 죄짓는 기분이었지만
기죽지 말라고 한 일이니 이해해다오

봄쳐녀 제 오시네~

이 노래를 기억하니?
부부동반모임이 있어 노래를 준비해야 했는데
가곡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사남매 상의해서 이 노래를 골라주었지
가사도 예쁘고 멜로디도 참 좋더구나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딸기 값이 제일 쌀 때 정성껏 딸기잼을 만들었고
포도 끝물에는 포도잼과 포도주를 만들었지
식빵에 엄마가 만든 딸기잼 듬뿍 발라
맛있다 찹찹거리며 먹는 모습이 예뻐
매년 제철 과일 끝물일 때 과일잼 만드는 게
엄마의 기쁨이었단다.

알차게 먹인 것도 없는데
아침저녁 맹물세례만으로 콩나물 크듯
쭉쭉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고맙고 기뻐단다.

아버지 사업이 흥하기를 몇 번
망하기를 더 몇 번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어린나이에 여러 번 했으니
너희들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
심성이 연약한 엄마는 결국 암에 걸리고 말았지
몇 년을 병원을 들락거리고
결국 신유의 은사에 기대어 전국을 떠돌기도 했고
방학 때마다 너희들과 부흥회 간이천막에서 함께 지내야 했었지

그 때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빌었단다.
막내아들 장가가는 것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몸이 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때
엄마의 기도는
오직 너희들뿐이었단다.

결국 엄마는 누구의 결혼식도 못보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사남매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아들아
엄마가 평생한 일이라고는
세끼 밥상 차리는 거였단다.
밥상을 차려보니 알겠더라
천성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밥상에 그릇 놓인 것처럼
국그릇 밥그릇도 있고 작은 간장종지도 있듯
사람의 천성과 쓰임새는 다 다른 거란다.
작은 간장종지가 나도 이제 밥그릇이 되겠소 한들
밥풀 몇 개는 담을 수 있어도
온전히 쓰이는 건 아니지 않겠니
쓰임 받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이란다.
국그릇이 크고 멋져 보여도
뜨거운 국물 품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남 부러워하지 말고
받은 그릇 모양대로 살거라
그래야 니 맘이 편하고 행복하단다.

아들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엄마가 잼 만들 때 딸기끝물 기다리듯
주어진 삶의 끝물까지 진득하게 있다가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그 때 만나자

다시 만나는 그 날
나지막이 이 노래 불러줄게

봄 쳐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엄마 찾아오시는고

- 엄마를 그리며 머리통 큰 막내아들이
엄마를 대신해 편지글 씀

함줄함줄에 기고된 엄인호 집사의 글입니다.



목회칼럼

희년의 사랑

과잉(過剩)은 어떠한 것이 매우 지나치게 많거나 초과(超過)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잉을 불여서 과잉공급, 과잉진압, 과잉처벌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든 적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의 자본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저자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장하성 교수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Capitalism in Korea II)」라는 책에서 소득분배의 실패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을 우려하고 이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음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

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경제적 위기감과 미래에 대한 고용불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소득과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스펙, 열정, 헌신, 비전이라는 문구아래 청년들이나 취업대상자,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리는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이 지속되어 간다면 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주었습니다. 안식일

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7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했으며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휘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7년 중에 1년은 쉼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지주의 땅에서 지대를 지주에게 주지 않아도 소작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안식일에 거두어지는 십일조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적 참여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본인 소유의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일곱 안식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자신의 땅을 돌려받는 희년이라는 제도도 주었습니다. 희년은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가족 구성원, 즉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

식년과 희년의 제도로 인해서 경제적 참여가 박탈되어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공동체를 해체시키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율법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작은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안식년과 희년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교회에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웃은 없는지 찾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여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 이웃의 가정의 안식년과 희년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은석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1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9)

정신여학교의 지정학교 승격 운동



1926년 정신여학교 성탄절 행사

1923년 11월 일제의 지정학교 제도를 도입하자, 정신여학교는 지정학교 승격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학교 시설과 일제가 인정

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문제였다. 1924년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학교에서 자선시르 개최하였다. 교실을 신축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학교가 지정학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1925년 지정학교로 승격을 하게 해달라고 동맹휴학을 하였다. 학교장은 총독부 학무국을 방문하여 지정문제를 논의하였고, 학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내년 1월에 승격 시험 준비를 볼 예정으로 한다는 설명을 학부형대표와 학생에게 한 후에 12월 4일 동맹휴학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승격시험은 설비 등의 자격이 완비되지 않으면 일제가 승격시켜주지 않는 문제였다. 1927년 5월, 정신여학교가 총독부 지정을 받지 못하자 선교부에서는 학교 경영난을 이유로 학교를 폐쇄할 지도 모른다는 입장이 나왔다. 그리고 미선교본부에서 1년

에 1만원 정도 지원하던 지원비를 중단하였다. (1926년 학교경비가 30,000원, 1927년 학교경비 20,320원, 1928년 학교 경비 12,100원) 그러자 경기노회(현, 서울노회)는 정신여학교를 폐지시키는 것은 한국교회선교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의견을 미선교본부에 청원하였다. 11월, 미북장로회 선교본부는 정신여학교를 기독교 정신아래 학교를 경영한다면 조선인 측 어떠한 재단에게도 기지와 건물을 합쳐 그대로 인도하겠다는 의향을 알려졌다.-조선글로, 무궁화빛 글짜로 만든 정신학교 마크는 이러한 때에 제정된 것이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기나들이


김소연 아기

2015년 12월 14일생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2.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3. 하나님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 김도연 / 엄마 정연옥, 2016년 4월 24일 3부 예배



문윤성 아기

2016년 2월 26일생

1.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윤성아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문상운 / 엄마 김태연, 2016년 4월 24일 3부 예배



정석운 아기

2015년 12월 16일생

1.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2.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3.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게 하소서.
4. 아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아빠 정철규 / 엄마 김진, 2016년 4월 24일 3부 예배



서연호 아기

2016년 1월 20일생

1.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2.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3.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은 사랑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온유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빠 서병구 / 엄마 김은혜, 2016년 5월 15일 2부 예배



최봄 아기

2016년 1월 20일생

1.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2. 만물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봄처럼 하나님의 현숙한 신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3.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빠 최신 / 엄마 윤선희, 2016년 5월 15일 2부 예배



한상운 아기

2016년 2월 21일생

1.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성장하기를
2.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3. 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아빠 한진우 / 엄마 공주희, 2016년 5월 15일 2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주님의교회 통일선교 일정

1. 제3회 통일선교학교 “하나님의 나라 – 통일을 살라!”

(Live in Unification for the kingdom of God!)

일시: 5/19(목)~6/9(목)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

장소: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지하)

회비: 10,000원(5/8부터 로비에서 접수)

내용

1일차 5/19(목) 통일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길(허문영 박사)

2일차 5/26(목) 북한의 현실과 다가온 통일 이해(서훈 교수)

3일차 6/02(목) 북한에서 통일살이 - 남북나눔운동(신명철 상임대표)

4일차 6/09(목) 남한에서 통일살이 - 북향민과 더불어살기(오테레사 선교사)

2. 통일선교주일

주제: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출 5:3)

(Lord! Make them worship you with us!)

일시: 6/12(주일) 주일예배(1~4부)

장소: 주님의교회

당일 드려진 헌금은 모두 통일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3. 국내 분단현장 비전트립

일시: 6/18(토) 08:00(교회출발시각)

장소: 을지전망대(DMZ), 제4땅굴

회비: 10,000원

2016 청소년 학부모 교사 기도회

희망의기도

Prayer for hope

교회의 희망 · 가정의 희망 · 미래의 희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 1층 소예배실

문의: 청소년교육목회원 이준업 목사 010-7736-0662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

14기 결혼예비학교

2016.6.12~6.26(3주간)

매주임 4~8PM

1강 6월 12일 “성경적 결혼관”

2강 6월 19일 “결혼을 위한 준비: 마음과 태도”

3강 6월 26일 “결혼과 가족의 통령: 우리: 의사소통”

4강 7월 3일 “가정 내 부부의 사랑: 사랑의 역할”

5강 7월 10일 “크리스천의 결혼”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과 신부부모
장소 | 주님의교회 1층 대예배실
문의 | 02-416-5183

교재 | 각 가정당 2만원 (식사와 간식비, 강연도서 1권, 기념품)
강사 | 주님의교회 1층 대예배실
강의 | 4층 교학대실 강사대스크린보실 특석 02-416-5183